

국민 52% “바람직한 남북 미래상은 자유 왕래 2국가”

민주평통 2분기 통일여론조사...통일 필요하지만 단일국가는 28.5% 찬성 '北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50.8% 도움 안돼...“北, 적대·경계대상” 42.5%

국민 대다수(73%)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선호하는 국가 형태는 '단일국가'보다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2.0%가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택했다. '단일국가'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인 28.5%였으며, '1국가 2체제'와 '현재와 같은 2국가'가 각각 9.8%와 7.9%로 조사됐다.

민주평통의 정기 통일여론조사에 유사 질문이 2021년 3분기에 처음 반영된 이래 지난 1분기까지 응답 비율은 대체로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 자유로운 상태'(33.6~40.1%),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33.2~38.8%),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23.8~25.7%) 순이었다.

지난 1분기에는 독일형(38.8%), EU형(33.6%), 미국·캐나다형(24.6%) 순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2분기 조사에서 답변 형태를 국가·체제 수를 기준으로 변형하자 2국가 체제 선호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반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4%(매우 필요 38.4%, 어느 정도 필요 35.4%)가 동의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25.4%에 그쳤다.

민주평통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남북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육박해(48.6%) 전체적으로 2국가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 발전'(30.9%), '전쟁 위협의 해소'(25.8%), '민족의 동질성 회복'(17.8%), '국제적 위상 강화'(12.4%), '자

유와 인권 실현'(11.2%) 순으로 꼽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적대·경계 대상으로 보는 국민이 42.1%로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47.1%)보다 적었지만 2017년 4분기(42.5%) 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국민 절대다수(88.0%)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남북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8%)를 꼽은 비율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27.1%) 비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북한인권 실태 기록 및 공개'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택한 응답자는 각각 18.3%와 14.2%를 기록했다.

정부가 북한인권 공론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이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 국민 50.8%(별로 34.5%, 전혀 16.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은 40.2%(매우 10.2%, 어느 정도 31.9%)였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악화했다는 응답(36.0%)보다 높았다. /유연재 기자 yjyou@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

전남도·해수부·영광군·신안군 ‘소금박람회’...16~19일 서울 코엑스

‘2023 소금박람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 공동 주최로 열리는 박람회는 뛰어난 맛과 품질의 천일염을 ‘K-솔트’로 명명하고 전 세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여학 교육 기관, 문화교류센터, 주한 외국공관 등 220여 외국인 관련기관에 포스터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 사전홍보를 펼치는 한편,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SNS 서포터즈를 구성해 소금박람회 현장을 전 세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박람회 전사·홍보관은 K-솔트·여행·건강·생활·소비자·브랜드 등 6개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주전사관인 K-솔트관은 전통 기와 형태의 부스·영상·조형물로 표현해 천일염의 역사, 생태, 세계의 소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행관은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소금 등 캠핑

제품을 비롯, 신안과 영광의 천일염 산지를 여행할 수 있는 연계 관광정보로 구성했다.

건강관에서는 소금힐링물, 호흡기케어 제품 등 바르고(미용), 머금고(구강), 느끼는(치유) 다양한 천일염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생활관에서는 생활 속 유용한 천일염 활용 방법을 소개하며, 소비자관에서는 소비자가 국산 천일염을 신뢰하도록 천일염 이력제, 우수천일염 인증제 등 관련 정책·제도를 홍보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네스코도 세계유산으로 인정된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며 “K-솔트가 글로벌 명품소금으로 도약하도록 힘차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네스코도 세계유산으로 인정된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며 “K-솔트가 글로벌 명품소금으로 도약하도록 힘차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광복군 제3지대’ 오성규 지사 영구 귀국 ‘한국광복군 제3지대’ 출신으로 일본에서 영구 귀국하는 오성규 지사가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제공항을 통해 귀국, 한국 환영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복절 앞두고 독립지사 지강 양한묵 한시집 ‘청산’ 발간 화제

호남 유일 ‘민족대표 33인’...화순 출신 국민대 양현승 교수 번역

지강(芝江) 양한묵(1862~1919·사진)은 호남 유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구한말 독립운동을 펼쳤던 교육자였다. 본관이 제주인 지강 선생은 지난 1962년 건국훈장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일제강점기 꿈을 노래했던 지강 양한묵 선생의 한시집 ‘청산(靑山)(나무자전거)이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발간돼 화제다.

화순 출신으로 전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교수인 양현승이 번역했다.

그동안 양한묵 선생은 독립지사, 교육자 위주로 조명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이번 한시집에서 저항시인으로서의 지강 선생의 한시를 조명하고 의미를 분석한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선생은 이후 서대문 감옥에서 암살을 당해 향년

58세로 생을 마감한다. 서울 수철리 공동묘지 안장됐다 1922년 천도교 주관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달구산으로 반장(返葬)됐다.

지강 선생은 천도교 도사로 있으면서 ‘천도교회 월보’에 1911년 6월호부터 순국하던 해인 1919년 1월까지 약 8년여에 걸쳐 거의 매달 1~3수 씩 한시를 연재했다.

양 교수는 1996년 발간된 지강 문집 ‘백성이 한울이라’ 중 ‘지강의 詩文과 思想의 漢譯모음’에 수록된 79편을 저본으로 문집에 누락된 작품 13수를 더해 총 92수를 번역 수록했다. 또한 각 시의 내용을 해설을 첨가했다. 아울러 수필적 성격의 내문 3편, 독립지사들이 쓴 만시 6수와 한시 1수 등 총 103편을 수록했다. ‘청산(靑山)은 지강 선생의 한시에서 가장 많이 쓰인 시다.



양 교수는 “청산은 지강 선생이 찾았던 대한독립이고 이상향이며 무한 에너지 원(源)인 고향이기도 하다”며 “역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음 ‘청산’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우리의 민요를 비롯 전통 시가 문학에서도 자주 쓰이듯이 시적인 의미를 더 깊고 넓게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속도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동구 불로동에 조성 연말 완공 목표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기념사업 활성화는 물론 중국 단체여행 재개에 따른 대규모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토지 보상 등을 놓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까지 가는 분쟁 끝에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동구 불로동 878㎡에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역사공원에는 정율성(1914~1976)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는 광장, 정자, 교양·관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0년 3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5월 공원 조성계획까지 결정했지만, 그동안 보상 갈등 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광주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 소송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토지 보상을 포함해 모두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율성 선생 생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주택은 자체 상태 등에 따라 완공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 정율성 선생은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자라다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1939년)’ 등을 작곡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으나 동구 불로동, 남구 양림동, 화순군 능주면 등 생가 논란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광주시, 광주 동구·남구, 전남 화순군은 2015년 고공을 거쳐 논란을 마무리 짓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문화유류부(문화관광부)는 지난 10일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17년 3월개부러 본격화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여 만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분할공급 및 건설업 양도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1. 연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23일 본 회사의 건설사업부(연에스건설)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가) 연에스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는 주주총회 결의로 분할회사를 승인했다. 이 때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분할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개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사에 이의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단1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인추행)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인추행) 피고인: 오광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인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없음 이유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3년 8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박성남

회사 분할 및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안복이앤에스는 2023년 0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본 회사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된 재산으로 부문을 (가)정주식회사 정연자(이하 '정연자')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기로 한다.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출자한 재산 및 사업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할 것임을 하였고 또한 본 회사는 신설된 회사에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회사 사본발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각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으로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은 같은 비율로 배정 하는 바, 구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및 일권자는 본 공고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주권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4일 주식회사 안복이앤에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413, 203호(고봉동) 사내이사 김광진

자본감소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대송전기 주식회사는 2023년 08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 총액 금570,000,000원을 320,000,000원 감소시켜 25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는 발행주식 57,000주 중 32,000주를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유상으로 말소할 예정으로 결정하였음을 공시함.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들은 이 공고개시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주님들은 위 비율에 따라 변경 후 재교부할 예정이오니 위 기일까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4일 대송전기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마덕단지길 53 대표이사 차준석

분실공고 임대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6-3 한국도술아일랜드 103-302호. 계약자: 김형재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8월 14일

상행안내 8월19일(토) ▲광주호신회 8월 19일(토) 제(65)차 정기산행 내연산 12목포, 소금강 전망대 트레킹 및 호랑 스페이스워크 오전 05시 30분 광양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5시 45분 내원동 육교 및 05시 50분 배운우체국 06시 롯데마트 06시 15분 광주호신회전망 휴면 010-4621-2166, 010-6702-9776 http://cafe.daum.net/gwangjuhoosi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8월 14일